

보도자료

이 자료는 12월 2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6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3년 4/4분기 울산경제 모니터링 결과』 및 『한국
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 발간

- 2023년 4/4분기 울산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 울산지역 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
 - 생산은 제조업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소폭 감소
 - 수요는 민간소비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투자 및 수출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
- 한편 한국은행은 울산본부 등 15개 지역본부의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를 발간하였음(12.26일)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 붙 임 : 1. 2023년 4/4분기 울산경제 모니터링 결과 1부.
2.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의 주요 내용 1부.

문의처 :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이상진, 조사역 신준식

Tel : (052)259-7421 Fax : (052)259-7491 E-mail : ulsaneco@bok.or.kr

“한국은행 울산본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ok.or.kr/ulsan>)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로서 한국은행 등이 추후 발표하는 공식통계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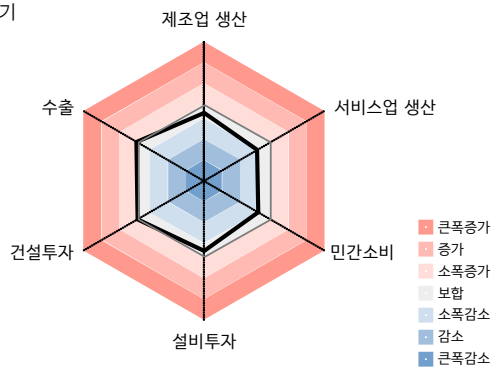
- 2023년 4/4분기 중 울산지역 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
- 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
- 수요의 경우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투자 및 수출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
- 고용사정은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개선
- 물가는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주택 가격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

생산

- 2023년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
 - 자동차 생산은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¹⁾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증가
 - 다만, 주요국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 유럽의 경기둔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등은 부정적인 요인
 - 조선은 기수주 물량²⁾에 대한 건조가 이어지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
 - 높은 수주잔량에 힘입어 향후에도 생산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장인력 수급난에 따른 건조지연 가능성은 우려 요인

경기 레이더¹⁾

■ 4/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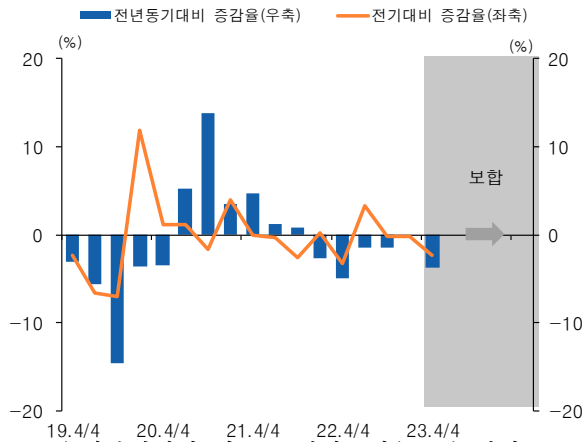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자료: 한국은행

- 석유정제는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 회복이 지속되었으나 미국 등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
- 석유화학은 중국의 석유화학 원료 자급률 확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건설업 등 수요산업 업황 부진 지속, 일부업체의 정기보수³⁾ 등으로 전분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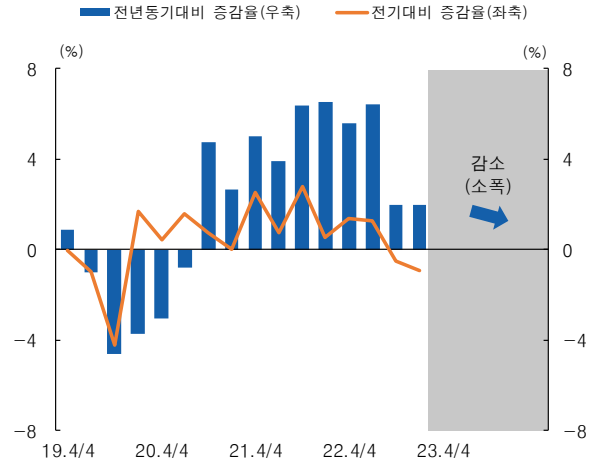
- 1) 현대차의 10월 중 생산(대수기준)은 전분기 월평균 대비 16.6% 증가하였고, 울산의 자동차 및 부품의 북미수출은 전분기 일평균 대비 30.1% 증가하였다. (자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무역통계진흥원)
- 2) 울산지역 조선업체(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2022년 수주달성률은 126%로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한 데다, 2023.10월까지 수주달성률(누적수주잔액 기준)도 110%로 연간목표를 이미 초과하였다.
- 3)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은 4분기 중 정기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¹⁾²⁾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제조업 생산 (23.4/4분기 중)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및 선 그래프는 10월 실적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생산¹⁾²⁾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서비스업 생산 (23.4/4분기 중)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 2023년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 도·소매업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⁴⁾ 등으로 소폭 감소
- 숙박·음식업은 외식물가 상승⁵⁾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부진
- 운수업은 여객운송 부문의 경우 지역내 이동량이 증가⁶⁾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개선

수요

□ 2023년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

- 대규모 신규 입주⁷⁾에 따른 가구·가전 등 내구재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 상승⁸⁾에 따른 소비 여력 위축 등으로 의류·가방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둔화 지속

4) 울산지역 소비자심리지수: 23.3/4 101.2 → 10~11월: 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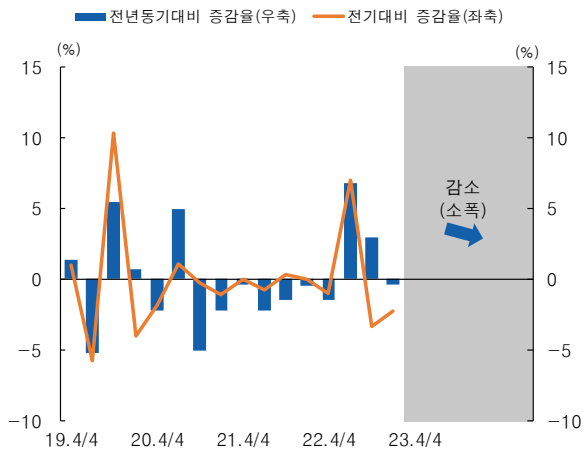
5) 23.11월 기준 울산지역 외식물가는 전년말대비 4.1%, 전년동기대비 4.4% 상승하였다.

6) 울산지역 주간 평균 이동량은 23.10~11월중 266만건으로 전분기(261만건) 대비 1.9% 증가하였다. (통계청 모바일 인구이동량 기준, 지역내 이동·지역외 유입 포함)

7) 23.9월말부터 울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에 2,625세대가 입주를 시작하였다.

8) 23.11월 기준 울산지역 생활물가는 전년말대비 4.0%, 전년동기대비 3.8% 상승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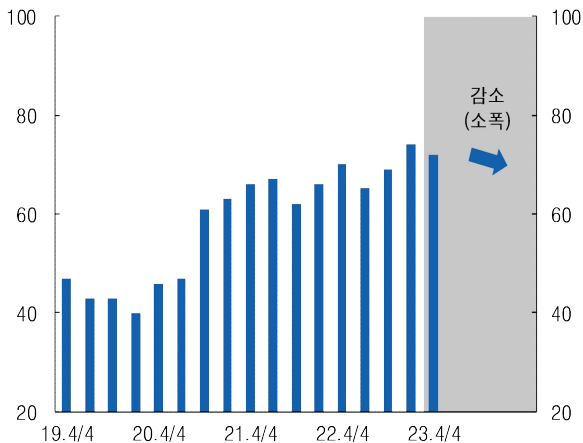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민간소비 (23.4/4분기 중)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 2023년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

○ 건축착공면적이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업황 BSI는 소폭 감소

건설업 업황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건설투자 (23.4/4분기 중)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11월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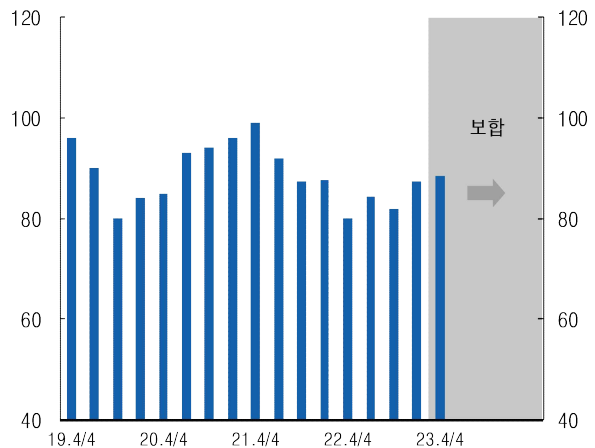
□ 2023년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대비 포함

○ 석유화학은 대규모 신규공장 건설, 생산설비 증설 등을 지속⁹⁾

○ 자동차 및 2차전지도 R&D 및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¹⁰⁾

○ 향후 석유화학¹¹⁾과 자동차¹²⁾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환,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속될 전망

설비투자BSI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설비투자 (23.4/4분기 중)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11월 평균
 자료: 한국은행

□ 2023년 4/4분기 중 일평균 수출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¹³⁾

○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13.3%), 선박(+27.1%) 등이 증가하였고, 석유제품(-2.6%), 석유화학제품(-9.3%) 등은 감소

9) S-Oil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9조 3천억 규모의 설비투자(사헌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SK지오센트릭은 페플라스틱 열분해 공장(6만6천톤/년)을 착공하였다.

10) 현대차, 고려아연은 지난 11월 각각 전기차 전용공장(20만대/년), 올인원 니켈 제련소(4만2천6백톤/년)를 착공하였으며, 삼성SDI는 배터리 소재에 대한 연구 및 생산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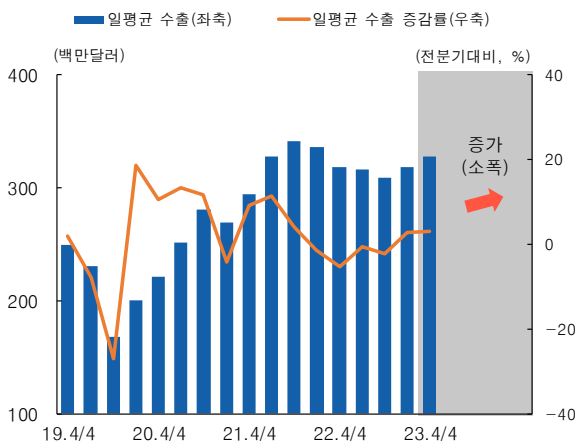
11) 롯데케미칼은 울산2공장에 1,000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11만톤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34만톤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12) 현대차는 지난 5월에 공개한 전기차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울산하이테크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13) 2023년 10~11월 중 일평균 수출은 전분기대비 3.0% 증가하였다.

- 자동차는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에서 친환경차 및 SUV 등의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며 수출이 증가
- 선박은 기수주 물량의 인도가 본격화되어 수출이 증가
- 석유제품은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 석유화학제품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 내 자금률 상승 및 건설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수출¹⁾



주: 1) 음영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수출(23.4/4 분기 중)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11월 실적치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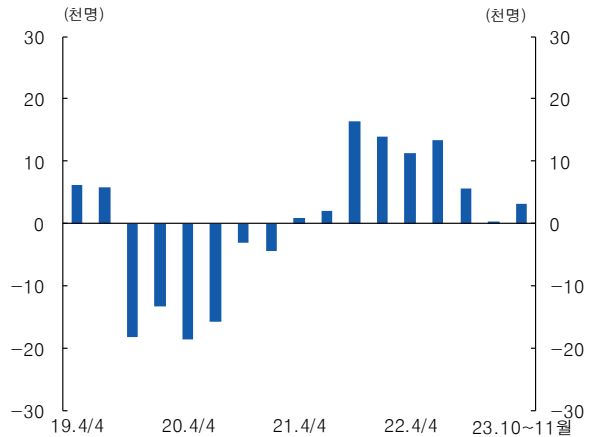
고용

- 2023년 10~11월 중 고용사정은 전년동기 대비 개선
- 취업자수는 57만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천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은 소폭 상승¹⁴⁾

14) 2023년 10~11월 중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2.6%로 0.1%p 상승하였다.

- 업종별 취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13.7천명), 건설업(+3.9천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3.1천명) 등이 증가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7.2천명) 등은 감소

취업자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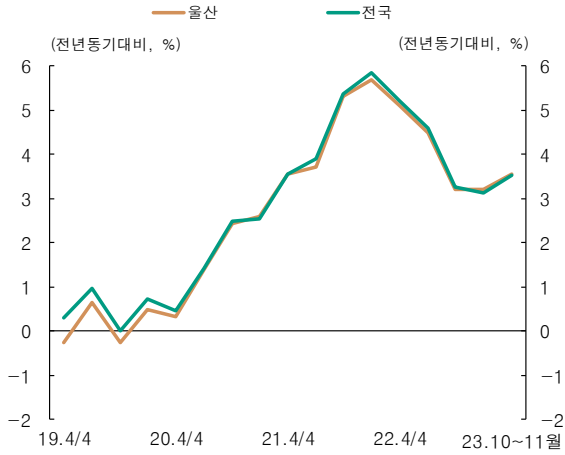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 증감은 전년동기대비(월평균)
 자료: 통계청

물가 및 주택가격

- 2023년 10~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6% 상승
- 상품가격은 전기·가스·수도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2% 상승하였으며 서비스 가격은 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3.0% 상승¹⁵⁾
-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4% 상승

15) 상품가격은 전기·가스·수도(+9.5%), 농축산물(+7.1%), 공업제품(+3.0%)이 상승하였다. 서비스 가격은 개인서비스(+3.7%), 공공서비스(+2.2%), 집세(+0.5%)가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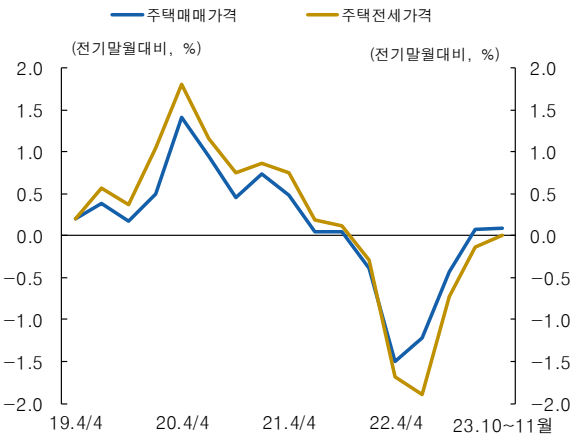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2023년 10~11월 중 주택가격은 전분기 말월대비 소폭 상승¹⁶⁾

○ 전세가격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¹⁾²⁾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증감률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 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16) 2023년 10~11월 중 울산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 말월대비 0.08% 상승하였다. 동 기간 전국은 0.12% 상승하였고 수도권은 0.19% 상승하였다.

II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12월)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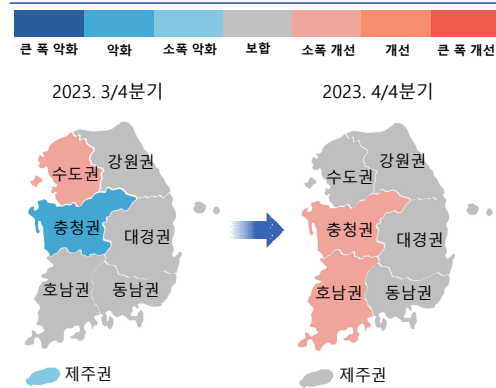
■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로서 한국은행 등이 추후 발표하는 공식통계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경기 개황

2023년 4/4분기 중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의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반도체, 조선, 기계장비 등이 전분기 수준에 머물면서 보험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운수, 숙박·음식점 등의 성장과 도소매, 부동산 등의 위축이 엇갈리면서 보험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호남권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나머지 권역은 보험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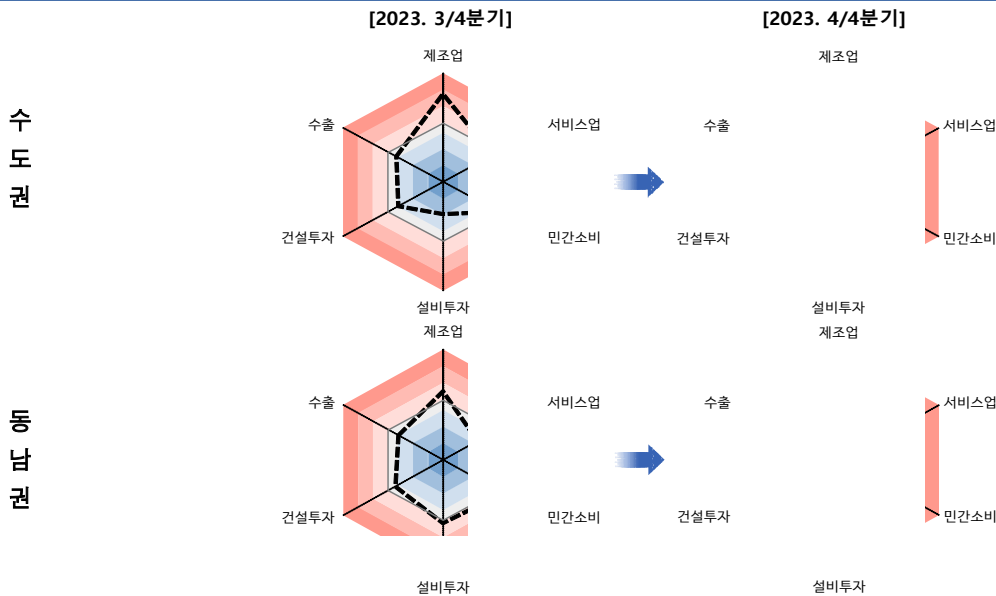
향후 지역경제는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철강 등의 둔화와 석유 정제 및 화학의 부진으로 보험세를 보이겠으며, 서비스업도 운수를 제외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보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권역별 경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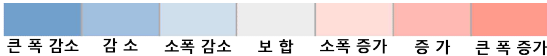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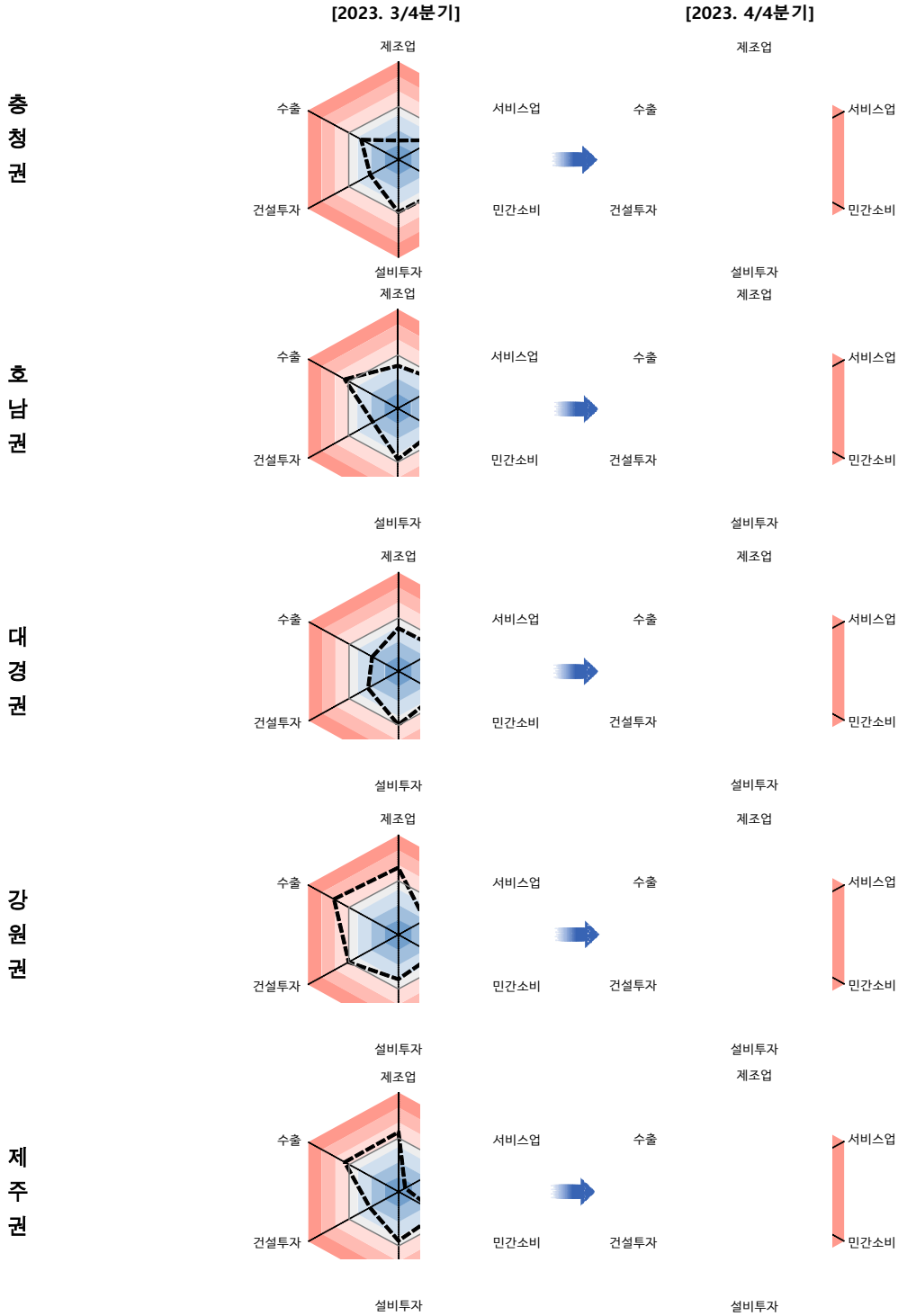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권역별 경기 레이더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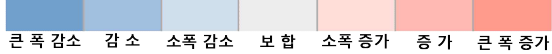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



2. 생 산

제조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중국경제 회복 약화, 국내 투자수요 정체 등으로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생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선, 기계장비 등은 포함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호남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권역들은 포함세를 유지하였다.

권역별 제조업 생산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IT경기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가 반등하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소폭 성장하겠으나 자동차, 철강·금속 등의 둔화와 석유정제 및 화학의 부진 지속으로 포함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등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동남권, 호남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서비스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여객 및 화물 운송수요 증가, 일부 지역 대규모 행사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물가, 주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을 지속하였다. 산업별로는 운수와 숙박·음식점이 개선된 반면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등은 수요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수도권은 소폭 감소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포함세를 보였다.

권역별 서비스업 생산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세계 상품교역 및 국내외 여행 회복으로 운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소비심리 정체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은 부진할 것으로 보여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은 소폭 감소, 대경권, 제주권은 포함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4/4분기 중 권역별 제조업·서비스업 생산 동향¹⁾

	제조업	서비스업
수 도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동 차(▲): 국산 친환경차 선호로 수출 증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신제품 OLED 패널 공급, 자동차 OLED 시장 본격화 ·반 도 체(▼): 메모리 반도체 감소 등 ·의 약 품(▼): 합병에 대비한 생산 물량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 수(▲): 해운 화물, 항공 화물 및 여객 모두 개선 ·도 소 매(▼): 온화한 기온으로 이너웨어 등 판매 저조 ·금융·보험(▼): 주식 및 채권 시장 거래대금 감소 ·부 동 산(▼):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숙박음식점(◇): 높은 외식물가에 따른 외식수요 감소
배 판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동 차(▲): 북미지역 중심 수출 증가 ·석 유 화학(▼): 중국 생산설비 증설, 일부 업체 정기보수 ·조 선(◇): 수주물량 건조 지속 ·철 강(◇): 자동차 생산 증가, 건설경기 위축 ·석 유 정 제(◇):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 개선, 미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음식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대규모 지역축제 개최 ·운 수(▲):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 ·도 소 매(▲): 재화 소비 증가 ·부 동 산(▼): 주택시장 부진
충 청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도 체(▲): 재고조정 효과 가시화, 전방산업 업황 개선 ·디스플레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 신제품 출시 ·자 동 차(▲): 신차 수출 증가 ·철 강(▲): 중국의 감소로 공급과잉 다소 해소 ·석 유 화학(▲): 에틸렌·니프타 스프레드 확대, 중국 경기 부양 ·전 기 장 비(▼): 유럽지역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차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 수(▲): 여행객수 증가, 해운 물동량 회복 ·부 동 산(▲):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숙박음식점(▲): 대규모 지역행사 개최,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 ·도 소 매(▼): 고물가 및 고금리로 구매력 약화
호 남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 유 화학(▲): 수출 회복에 따른 기동률 상승 ·조 선(▲): 양호한 수주량, 인력 수급 상황 개선 ·전 자 부 품(▼):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 감소 ·석 유 정 제(◇): 정제마진 축소, 대중국 수출 감소 ·자 동 차(◇): SUV 판매 호조, 일부 업체 공장 가동 중단 ·철 강(◇): 자동차와 조선의 양호한 업황, 건설, 기계 등 수요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 수(▲): 항공운송 물동량 및 항공 운항편수 증가 ·도 소 매(▼): 소비심리 회복 지연 ·부 동 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숙박음식점(▼): 주류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부담 증가
대 경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 확대 ·휴 대 폰(▲): 해외사업장 생산물량 증가 ·철 강(▼): 전방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 ·기 계 장 비(◇): 전방산업 해외 투자 증가, 내수 위축 ·자동차부품(◇): 완성차 판매 증가세 지속,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 둔화 ·섬 유(◇): 주요국 수출 감소, 그 외 지역 수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동 산(▲): 주택거래량 증가 ·도 소 매(▼): 음식료품, 의복 등 수요 부진 ·운 수(◇): 항공 운송 증가세 지속, 육상 운송 감소 ·숙박음식점(◇): 외국인 관광객 증가, 행사 수요 확대, 내국인 관광객 감소
강 원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선(▲): 해상풍력 발전용 해저케이블 수요 지속 ·의 약 품(▲): 국내 호흡기 감염병 확산, 보툴리눔독소 중국 수출 호조 ·자동차부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완성차 내수 둔화 ·시 멘 트(◇): 국내 건설경기 둔화, 기차공원 공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소 매(▲):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증가 ·부 동 산(▲): 주택 매매거래 증가 ·숙박음식점(▼): 일본 등 근거리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지역 방문객 감소 ·운 수(◇): 항공 여객수 증가, 철도 및 버스 이용객수 감소
제 주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도 체(▲): 홍콩 등으로부터 5G 통신 기기 수요 확대 ·식 음 료(▼): 내국인 개별 관광객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음식점(▲): 내국인 단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증가 ·도 소 매(▲): 온라인 판매 확대, 대규모 할인 행사 ·부 동 산(▼): 주택매매가격 약보합세 지속 ·운 수(▼): 국내선 운항편수와 이용객수 감소

주: 1) ()는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감소, 보합을 나타냄

3. 수 요

민간소비 포함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포함세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도권과 대경권이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충청권 및 호남권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소비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사정,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겠으나, 고금리 영향 지속 등으로 회복세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충청권 및 강원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권역은 포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포함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계획된 투자를 지속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여타 권역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설비투자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향후 설비투자는 IT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및 제주권이 포함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투자 소폭 증가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집행 축소 등으로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증가하였으며 동남권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고, 여타 권역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권역별 건설투자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향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의 신규 수주 및 착공 위축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SOC 예산 증가 등이 감소폭을 제한하여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호남권 및 대경권이 포함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증가

4/4분기 중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과 수출물량 확대로 증가한 가운데 기계류,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도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및 제주권이 증가하였으며, 충청권 및 대경권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강원권은 감소하였다.

권역별 수출(일평균)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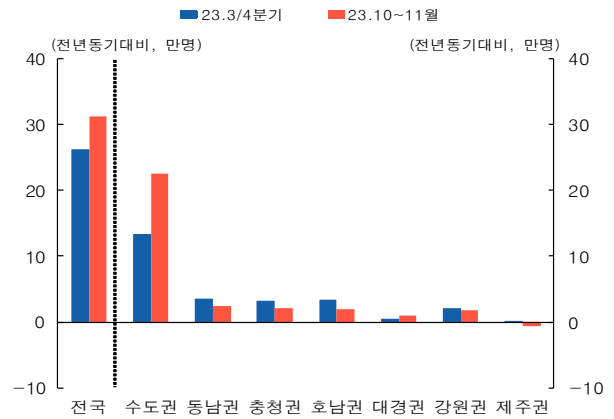
향후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증가하며 호남권을 제외한 여타 권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남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31.2만명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3/4분기(26.3만명)에 비해 확대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및 대경권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강원도의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제주권은 감소로 전환하였다.

취업자수 증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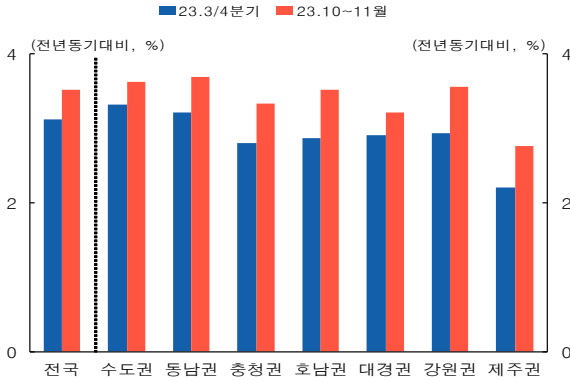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오름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기상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하락폭 축소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모든 권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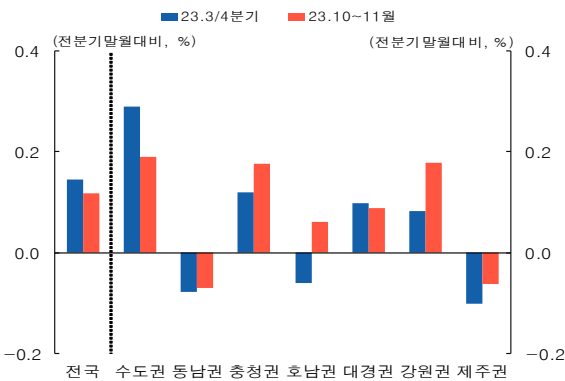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수요 증가 정체로 수도권 및 대경권의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충청권 및 강원권의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반면 동남권 및 제주권의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호남권은 상승 전환하였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